

“금호타이어 화재, 광주 경제성장률 0.32% 하락할 듯”

광주연구원, 생산 4500억 감소 전망
조기 정상화·소비진작 등 대응 필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올해 광주 지역 실질경제성장률이 0.32%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광주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에 따르면 화재 사고로 인해 광주공장 생산 중단으로 3375억8,500만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2,350명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는 평균임금 70% 수준인 휴업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급여는 625억9,8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매출 감소)로 인해 연간 4,500억원 생산감소, 1,551억원 부가가치 감소, 2,218명 취업자 감소 등을 불러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지역 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 부문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3,421억

원, 도소매업 71억원, 산업용장비수리업 66억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3억원, 운송서비스업 61억원 등이었다.

광주연구원은 올해 광주 실질경제성장률을 1.4~1.7%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액 추정치를 적용한 실질경제성장률은 0.32%하락한 1.08~1.38% 수준에 그쳐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연구원은 지역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광주공장 정상화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타이어 산업은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 간 전후방 연관도가 높아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 정책과 지역 내 부품 조달을 제고 정책 등이 필요하다

는 광주연구원의 주장이다. 김봉진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주공장 생산 조기 정상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광주공장 이전 관련 절차 이행이 시급하다”며 “실질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전후방 기업 경영 안정 지원 정책과 실질소득 보전, 소비 진작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 서구-빚고을콜택시·천원택시 업무협약
광주 서구가 의료 취약 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9일 구청장실에서 광주빚고을콜택시와 천원택시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기초의료급여 1종) 360여 명으로 중증 암·난치(희귀)성 질환자, 결핵 및 중증 화상환자 등이 포함된다. 광주 서구 제공

김영록 지사 “전남서 우주의 꿈 펼치도록 지원”

“우주산업 메카 중요한 이정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고흥에서 민간 유인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 유나스텔라가 개발한 발사체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

유나스텔라가 발사한 발사체는 민간 우주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민간기업이 상업적 발사 서비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유나스텔라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을 발판으로 전기 모터 펌프 사이클 엔진 기반의 차기 발사체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 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도는 대한민국 유일 우주 터미널인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국가산단, 민간발사장, 엔진연소 시험시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우주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제2우주센터를 이곳에 집적화해 유나스텔라와 같은 혁신적 우주항공 기업이 재사용발사체 등 차세대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발사체의 성공적 비행은 전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더 많은 기업이 전남에서 우주의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1000여종 주류 한 곳에’ 광주주류관광페스타 막 올라

내달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 세계 1,000여종의 주류를 맛 볼 수 있는 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29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025광주주류관광페스타’ 김대중컨벤션센터 C홀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화제를 맞는 주류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개국·93개의 업체가 1,000여종의 주류를 선보인다.

행사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조지아, 중국, 프랑스, 헝가리, 호주 등의 다양한 주류를 만날 수 있다.

국내 우수 전통주 브랜드들도 대거 참여해 우리 술의 맛과 멋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수출상담회, 글로벌 리큐르 어워드, 외국인 양조장 투어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전통주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와 우리 술 제조사들이 만나 해외진출 기회를 탐색하는 특별한 자리다.

글로벌 리큐르 어워드에서는 전통주 전문가와 외국인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우리 술을 선발한다. 외국인 양조장 투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찾아가는 양조장 중 전남 소재의 유명 양조장 2곳을 외국인들이 직접 방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팔로우

하는 모든 입장객에게 히말라야 숙취해소제를 제공한다. 매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관람객 100명에게 전시회 로고가 새겨진 한정판 리유저블백을 증정한다.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관에서는 행운의 물렛 이벤트와 영수증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주최 측은 환경보호를 위해 ‘전시회 ESG’를 실천한다.

모든 입장객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시음잔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용 세척기를 설치한다. 또 시음 후 버려지는 공병 등을 분리수거해 폐기물을 대폭 줄이고, 전시회 장치물도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7월말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광주시는 29일 “질병관리청, 5개 자치구 보건소, 조선대학교와 함께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시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자치구별 500명씩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건강상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

병 및 관리수준 △사고 및 중독 경험 △삶의 질과 의료이용 등 지역주민 건강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면접조사는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진행하며,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조사원이 담당한다. 조사원은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정해진 복장을 갖춰 조사한다.

조사에 응답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원 전철도·설문 응답 확인 등을 위한 점검 전화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전체 결과는 2026년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광주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신고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

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된다.

윤승한 기자

함평군 공고 제2025- 611호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9홀→18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9홀→18홀)」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의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함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9홀→18홀)
나.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산2-7번지 일원
다. 면 적 : 578,671㎡
라. 시 행 자 : ㈜지민산업 대표이사 정유신
마.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5년 5월 29일 ~ 2025년 7월 4일(공휴일제외, 24일간)
나. 공람장소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함평읍사무소
다. 정보통신망 : 함평군 홈페이지(<https://www.hamyeo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재
라.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본,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등

3. 주민설명회 개최

위 치	날 짜	시 간	장 소
함평군 함평읍 함정로 1047-9	2025. 06. 12(목)	10:00	수충리1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대동길 52	2025. 06. 12(목)	11:00	수충리2구 대동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초동길 110	2025. 06. 12(목)	13:00	만흥리 초동경로당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발효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061-320-16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안)은 환경영향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아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희망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광주전남지회

NAVER 드림꽃도매 판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